

『傷寒論』厥陰病에 대한 고찰: 辨病診斷體系에 입각해  
치료한 증례 2례에 근거하여조성환<sup>1</sup> · 윤효중<sup>2</sup> · 이성준<sup>3\*</sup>전남 함평군 월야면 월야보건지소<sup>1</sup>전남 영광군 영광읍 영광군 보건소<sup>2</sup>서울 강남구 압구정 정인한의원<sup>3\*</sup>A Conceptual study on *Shanghanlun* Jueyinbing  
:Based on 2 cases treated by *Shanghanlun* provisionsSeong-Hwan Cho<sup>1</sup> · Hyo-Joong Yun<sup>2</sup> · Sung-Jun Lee<sup>3\*</sup>Worya-myeon Health care center<sup>1</sup>Yeonggwang-gun Health care center<sup>2</sup>Jung-In Korean medical clinic<sup>3\*</sup>

**Objective :**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w hypothesi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Jueyinbing in *Shanghanlun* by studying 2 Jueyinbing cases.

**Methods :** We analyzed the original form of the chinese characters ‘Jue(厥)’, ‘Jueyin(厥陰)’ and ‘Huoluan(霍亂)’ and tried to understand their contexts in *Shanghanlun*. At the same time, we analyzed 2 clinical cases diagnosed and treated as Jueyinbing according to newly hypothesized definition.

**Results :** Both patients suffered from eye diseases which caused by concentrating on a sophisticated work by straining their hands, feet and chest during the night time. After the herbal intervention, their eye diseases are improved firstly. The National Eye Institute 25-item Visual Function Questionnaire (NEI-VFQ) score increased on both patients. Not only all the patients' chief complaints relieved but their other clinical problems such as limb pain, hand tremble also improved.

**Conclusions :** These results highly insist that, at least in 15 characters provision of *Shanghanlun*, Jueyinbing had had the different usage from the conventional terminology, and it is assumed that Jueyinbing means the disease made by concentrating on a sophisticated work by straining hands, feet and chest during night time.

**Key words :** Jueyinbing, *Shanghanlun*,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Danggwihoeyeok-tang, Danggwihoeyeokgaosuyusaenggang-tang, Tongmaekhoeyeokgajeodamjeup-tang

\* Corresponding author : Sung-Jun Lee. Jung-In Korean medical clinic, 306, Apgujeong-ro,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baekpal@naver.com

· Received : 2017/12/01 · Revised : 2017/12/21 · Accepted : 2017/12/29

## 서 론

『黃帝內經』에서 최초로 厥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전개한 이래로 『傷寒論』 厥 및 厥陰病에 대한 연구는 불가피하게 『黃帝內經』에서 제시된 厥 개념 및 이론체계 위에 전개되어왔다.

곽<sup>1)</sup> 등의 연구에 따르면 『內經』에서 厥의 개념은 크게 人事不省, 四肢逆冷, 氣血逆亂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傷寒論』 厥 및 厥陰病 역시 위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거기다 『康平傷寒論』 기준 14字注인 “337. 凡厥者, 陰陽氣不相順接, 便為厥. 厥者, 手足厥冷者是.”<sup>2)</sup>의 厥을 정의내리는 문장이 위 『內經』의 氣血逆亂과 四肢逆冷의 의미를 담고 있었기에 그 인식이 더 굳어졌다.

그러나 박<sup>3)</sup> 등의 연구에 따르면 『黃帝內經』과 『康平傷寒論』 15字注는 같은 의학체계를 공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厥陰病은 『傷寒論』에 처음 등장하는 개념으로 『內經』과 다른 『傷寒論』 고유의 독립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厥, 厥陰病, 霍亂’의 독립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 『傷寒論』 저작 시대 어원을 파악하고, 『康平傷寒論』 15자 주 내의 타 조문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厥’이 ‘손발과 흉곽에 힘을 주며 작은 일에 몰두하는 행위.’라는 해석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厥, 厥陰病, 霍亂’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傷寒論』 辨病診斷體系<sup>4)</sup>를 운용·환자를 진단하였고, 厥陰病 處方을 투여해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임상증례를 분석하여 『傷寒論』 15字注의 독립적인 ‘厥, 厥陰病, 霍亂’ 의미 설정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厥, 厥陰病, 霍亂’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고대 중국 한자에서의 개념을 비교하여 『傷寒論』 15字注에서의 해석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것이 2개의 증례 분석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분석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연구방법 및 자료

### 1. 연구대상

2017년 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정인한 의원(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에 내원한 환자 중 厥陰病 및 厥陰病 霍亂으로 진단하고 厥陰病 처방을 투여해 치료한 2명의 환자의 증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증례에 대한 연구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며, 저자의 ‘연구윤리서약서’, 환자의 ‘연구자료 활용 동의서’ 등 서면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 2. 연구방법

#### 1) 진단

『傷寒論』 辨病診斷體系<sup>4)</sup>를 바탕으로 진단하였다. 환자의 병력을 청취하고 주소 증을 만들어낸 핵심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傷寒論』 text 중 적합한 七病-提綱條文에 순서대로 연결시켰다.

#### 2) 처치

『傷寒論比較』<sup>2)</sup>의 처방 용량에 따라 약

재를 넣고 탕전하였으며 120cc를 하루 세 번 복용하도록 하였다.

### 3. 평가방법

#### 1) 주소증

미국 국립 안연구센터 시각기능설문지 25(NEI-VFQ-25)의 한국어판<sup>5)</sup>을 이용하였다. 한국어판 설문지는 번역되는 과정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받았기에 별도의 자의적인 번역 없이 사용하였다.

NEI-VFQ는 노인성 백내장, 연령관련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거대세 포바이러스 망막염 등의 시기능 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거쳐 개발되었다<sup>6)</sup>. NEI-VFQ-25는 25개의 시각 관련 설문 문항과 추가적인 전반적인 건강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sup>7)</sup> 특정 규칙에 따라 문항별 점수를 산정한다. 모든 문항은 높은 점수가 더 좋은 기능을 나타내며 최고 및 최저점수는 0과 100이다.

#### 2) 부증

주소증인 안질환을 제외한 기타 증상은 Numerical Rating Scale(NRS)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 본 론

### 1. 『內經』의 厥과 다른 『傷寒論』의 厥, 厥陰病, 霍亂 개념

#### 1) 厥, 厥陰病의 기존 연구

기존까지 『傷寒論』 厥 및 厥陰病에 대한 연구는 『內經』에서 제시된 厥 개념 및 이론체계 위에 전개되어왔다. 곽<sup>1)</sup> 등의 연구에 따르면 『內經』에서 厥의 개념은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 a. 暴死爲闕로 갑자기 의식을 잃어 人事不省이 되는 것.
- b. 四肢逆冷, 手足冷, 四肢不溫
- c. 氣血逆亂 혹은 濁氣가 上逆하여 病이 된 것.

그 이후 유<sup>8)</sup> 등의 연구에서 정리한 『傷寒論』 厥과 厥陰病에 대한 역대 의가들의 의견은 『內經』에서 제시한 개념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또 이<sup>9)</sup>는 본인의 연구에서 가금(柯琴)이 인식한 『傷寒論』 厥陰病 개념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가금은 『內經』의 病溫 관련 내용을 근거로 “厥陰病의 提綱은 溫病이지 傷寒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고, 厥陰病은 肝과 관련된 질병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가의 주장 역시 『內經』의 조문과 장부 이론체계를 그대로 수용해서 『傷寒論』을 설명한 것이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 진행된 연구들은 조금씩 다른 개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 『內經』의 음양오행, 경맥 이론의 바탕

위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방<sup>10)</sup>은 본인의 연구에서 『傷寒論』의 厥을 “즉, 太陽經에서 感受한 寒邪가 시일이 지나면서 熱邪로 轉化되고 轉화된 熱邪는 체내에 잠복하여 陽氣가 외부로 도달되지 못하면서 高熱의 증상과 아울러 手足厥冷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하며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內經』의 경맥 이론을 차용해 손발이 차가워지는 과정을 厥로 설명한 것이다.

장<sup>11)</sup>은 “厥陰病의 실체는 陰極陽抑 즉, 內寒이 극심하여 厥陰의 陽氣가 短縮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그전에 “『傷寒論』은 邪氣의 厥逆, 正氣의 短縮이라는 『內經』의 厥에 대한 인식을 계승하여 陰陽 양면에서 厥을 인식하였다.”라고 명시하여 해당 결론이 『傷寒論』이 『內經』의 이론체계를 승계했다는 전제하에 도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기존까지의 연구가 자연스레 『內經』의 이론체계를 사용하여 『傷寒論』의 厥를 정의하고 설명하게 된 것은 『康平傷寒論』 기준 14字注인 “337. 凡厥者, 陰陽氣不相順接, 便為厥. 厥者, 手足厥冷者是.” 조문의 존재에서 기인한다. 문장 구조상 위 조문은 厥이 무엇인지 정의하려는 목적으로 쓰여 있어 지금까지의 『傷寒論』 厥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시도에서 빼놓지 않고 활용되었다.

그러나 박<sup>3)</sup> 등의 연구에 따르면 “『康平傷寒論』의 15字注와 『黃帝內經』의 이론체계는 차이가 있다. 그에 비해 14·13字注는 15字注와 같은 맥락에 있으면서도 그 설명 방식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黃帝內經』의 이론체계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內經』의 의학 체계와 구별되는 『傷寒論』 15字注의 독립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Table 1.** The comparison about the hypothesis on 厥(jue)

Studies	The major source of the hypothesis	Main basis of the hypothesis	The hypothesis of the interpretation of ‘厥(jue)’
Former studies about 厥(jue)	1. <i>Neijing</i> (內經) 2. <i>Shanghanlun</i> (傷寒論) 3. The books which cited <i>Neijing</i> ; <i>Jingyuequanshu</i> (景岳全書), <i>Dongueilbogam</i> (東醫寶鑑)	14 characters-provisions in <i>Shanghanlun</i> , specifically the quotation “337. 凡厥者, 陰陽氣不相順接, 便為厥. 厥者, 手足厥冷者是”	1. Severe syncope or coma to death 2. Cold limbs 3. Reverse 4. The last step in cold damage(傷寒)
This study	<i>Shanghanlun</i> (傷寒論)	15 characters-provisions in <i>Shanghanlun</i> such as “四肢拘急, 手足厥冷”, “汗出而厥, 四肢拘急不解” and two clinical cases	Concentrating on a sophisticated work by straining hands, feet and chest

그런 의미에서 위의 337번 조문은 14字注로서 『傷寒論』 15字注와는 이론체계와 형성 시기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337번 조문이 『傷寒論』 15字注의 厥의 개념을 동일 맥락에서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뒤쪽 “厥者, 手足厥冷者是.”는 嵌注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최소 14字注, 13字注보다도 후대에 기록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傷寒論』 15字注의 厥과 厥陰病의 의미를 온전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傷寒論』 14, 13字注, 嵌注, 傍注 그리고 『內經』을 비롯한 기존 한의학서의 내용을 빌리지 않고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 2) 『傷寒論』 저작 시대 어원 분석을 통한 厥, 霍亂의 의미 추정

본고에서는 ‘厥’字의 『傷寒論』 저작 시대의 어원 분석을 통해 厥陰病의 개념을 재정의 하고자 하였다. 고대 중국 한어에서 字形은 ‘悤’일 가능성이 크다. ‘悤’의 金文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로 이에 대해 중국의 고문자학자 곽말약(郭沫若, 1892~1978)은 이 글자가 가로로 누워있는 도지개를 뜻한다고 하였다. (figure 1)



Figure 1. 金文에서 나타난 ‘悤’

도지개는 활을 만들 때 활대에 대고 손발

로 당기고 밀어 활이 굴곡지게하고 활시위에 장력이 팽팽하게 가해지도록 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히 손발 및 흉곽에 힘을 잔뜩 주어야 한다.

이러한 金文에서의 활용의 의미가 본 글자에 함축되어 있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傷寒論』에서 厥이 手, 足과 함께 연관성을 가지고 사용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손발 및 흉곽에 힘을 잔뜩 주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것이 『傷寒論』에서 말하는 厥의 핵심적인 의미로 간주되어야 한다.

『內經』, 『東醫壽世保元』, 『東醫寶鑑』에서 霍亂은 ‘구토, 설사’라는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상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 이후 『傷寒論』의 霍亂의 해석에 대해서도 위의 개념적 맥락이 이어졌고, 특히 “382. 問曰, 病有霍亂, 何, 答曰, 嘔吐而利, 此名霍亂.” 조문 해석이 더해져서 토하고 설사하는 증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382번 조문은 13字注로, 이렇게 ‘問曰’로 시작하는 조문의 기술 방식은 15字注에서는 볼 수 없는 기술 형태로서, 15字注 霍亂의 용례를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Figure 2. 篆書에서 나타난 ‘霍’

『傷寒論』 15字注만의 독립적인 霍亂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한자 어원을 탐색하였

다. ‘霍’<sup>13</sup>은 雨(비 우)와 隹(새 추)로 구성된 글자로 여러 새가 떼 지어 나는 모습을 말하였다. (figure 2) ‘亂’<sup>13</sup>은 金文에서 두 손으로 영킨 실을 푸는 모습으로 손의 의미로서 爪와 又가 위에 있고 중간 부분은 실패와 ㄹ(실 요)을 뜻한다. (figure 3) 이와 같은 의미로부터 霍亂은 빗방울과 새 깃털이 어지럽게 얽혀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인 것이다. 임상적으로는 비문증과 흡사하다. 이러한 霍亂의 의미를 적용할 수 있는 병적 현상으로는 비문증 등 시력에 저하가 나타나는 상태를 고려할 수 있다.



Figure 3. 金文에서 나타난 ‘亂’

위 해석을 바탕으로 한, 厥陰病 霍亂의 의미는 해가 진 어두운 환경(陰)에서 손, 발, 체

간부에 힘을 주는 작업(厥)을 하여 발생한 병이 시력 저하(霍亂)를 동반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해석을 통해 厥, 厥陰病과 霍亂이 상호간에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 3) 『康平傷寒論』 15字注에서 厥이 쓰인 맥락 이해

『康平傷寒論』 기준으로 본문에 厥은 총 78회 등장한다. 그중 15字注만 살펴보면 총 11회에 불과하며, 傷寒卒病論이라 적혀있는 서문에 ‘厥身已斃’에 적혀있는 1회를 제외하면 본문에는 10회이다. 본문에는 辨大陽病에 3회, 辨少陰病에 2회, 辨厥陰病에 3회, 辨厥陰病 霍亂에 2회 등장한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辨大陽病 29조에 ‘得之便厥, 若厥愈足温者’, 38조에 ‘服之則厥逆’, 辨少陰病 315조에 ‘厥逆無脉’, 317조에 ‘手足厥逆’, 辨厥陰病 326조에 ‘厥陰之為病’, 350조에 ‘脉滑而厥者’, 351조에 ‘手足厥寒’, 辨厥陰病 霍亂 388조에 ‘手足厥冷者’, 390조에 ‘汗出而厥’로 등장한다.(Table 2.)

Table 2. Usage of 厥(jue) in *Shanghanlun* 15 characters-provisions

Combination with other words	Number of appearance	Provision number(Provision)
厥(jue)	10	29(2 times), 38, 315, 317, 326, 350, 351, 388, 390
厥(jue) + Hands(手), Feet(足), Four limbs(四肢)	5	29(脚攣急, 若厥愈足温者), 317(手足厥逆), 351(手足厥寒), 388(四肢拘急, 手足厥冷者), 390(汗出而厥, 四肢拘急不解)
厥(jue) + Staying in one spot	2	315(厥逆無脉), 317(手足厥逆, 脉不出)

본문에서 厥이 쓰인 맥락을 살펴보면 앞서 제시한 厥의 가설이 일정부분 타당함을 시사한다. 서문을 제외하고 10회의 厥 중 5회는 ‘手足’이나 ‘四肢’와 함께 쓰였다. 또 10회 중 2회는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는 ‘無脉, 脉不出’과 함께 쓰였다.

이는 곧 厥이 손발 혹은 사지와 연관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며, 厥하는 상황은 큰 움직임 없이 한 자리에 가만히 있으며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유추할 수 있다. 손발을 사용하여 정교한 일에 집중하는 상황은 정적인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종전의 연구들에 의하면 厥에 대한 해석 중 手足 혹은 四肢와 관련 있는 내용은 四肢逆冷이다. 그러나 15字注 厥만 놓고 본다면 四肢逆冷의 의미로 한정 짓는 것은 맥락상 적절하지 않다. 厥이 ‘手足, 四肢’ 등의 글자와 함께 쓰이더라도 차가움을 의미하는 ‘寒, 冷’을 반드시 동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 厥자 안에 ‘寒, 冷’의 의미가 포함되어있다고 한다면 뒤에 ‘寒, 冷’을 붙인 조문은 의미를 중복해 강조하였다고 보아야하는데 개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傷寒論』 15字注에서는 厥 자체가 항상 손발의 싸늘함을 의미한다기 보다 厥 자체로 별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厥 뒤에 ‘寒, 冷’이 붙기도 하고 붙지 않기도 하는 것은 환자의 厥행위 이후에 차가워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말했다고 생각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다.

## 2. 厥陰病 및 厥陰病 霍亂 증례 보고

본 고에서는 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傷寒論』 辨病診斷體系를 운용하였고, 厥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적용해서 厥陰病으로 진단하였다. 그 후 환자의 주소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추려내어 厥陰病 하위 條文으로 연결 지었다. 이어 해당하는 厥陰病 처방을 투여한 결과 유의미한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 증례 1

1. 환자명 : ○○○

2. 환자 기본정보

남성 / 30세 / 179cm / 72kg / 회계사, 고시 준비 중

3. 주소증(C/C) : 어지럼증, 눈 피로 및 충혈, 심할 때는 귀까지 빨개짐, 눈이 매우 피곤해서 글자가 잘 안 읽혀짐, 눈 밑이 떨림, 시험 막판에는 눈이 못 따라가서 문제를 다 못 푸는 느낌임. 원래 1문제를 푸는데 5-10분 걸려야 할 상황이 20-30분 정도가 소요됨

4. 발병일(O/S) : 2017년 5월

5. 현병력(P/I)

1) 2017년 5월 어지럼증과 눈 증상이 발생함. 그 이전에도 조금씩 발생하였으나 조절 가능한 수준이었음

2) 해당 어지럼증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거나 채점을 하다 보면 생김. (회계사) 고시공부는 정교한 계산을 요하는 공부임

3) 전정기관이나 기타 부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 받았을 뿐 해당 현상은 신경증이므로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한의원을 찾아 다녔는데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함

4) 2년 전에 체중과 근육이 빠져서 공부를 하기가 힘들어지자 스쿼트와 같은 웨이트 운동을 했음. 운동을 시험 당일 날까지 반복하고 나서 시험을 볼 때 해당 증상(어지럼증)이 나타나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음. 이 때 2차 시험에 떨어짐

6. 가족력 : 별무

7. 과거력 : 별무

8. 현재 복용중인 약물 : 없음

9. 주요 임상증상

1) 食慾

① 입맛이 좋음

② 육식을 좋아하는 편

2) 消化 : 잘 더부룩하고 트림을 자주 함.

특히 2016년부터는 소화가 안 되서 아이스크림만 먹어도 더부룩함

3) 口部 : 1일 1리터. 입을 자주 마르는 편

4) 汗出 : 특별히 땀이 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 활동을 해도 땀은 잘 남

5) 大便 : 1일 3회. 찬 것을 먹으면 설사를 자주 함. 가스가 차는 편임. 과거에 시험 당일 날 과일을 먹고도 설사를 해서 곤혹을 치

룬 적이 있음

6) 小便 : 1일 5-6회. 그 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

7) 寒熱 : 추위를 많이 못 참는 편이다. 에어컨 밑에 있으면 불편함. 현재 고시공부를 하느라 독서실과 도서관을 자주 가는데 에어컨은 일부러 피함

8) 頭面 : 머리가 많이 어지러움. 눈이 침침함

9) 呼吸 : 감기는 아닌데 기침이 자주 나옴. 폐활량 검사에서 호흡량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음

10) 胸部 : 별무

11) 腹部 : 별무

12) 睡眠 : 잠은 잘 자는 편이다. 매일 7-8 시간씩 취침을 함

13) 身體 :

① 공부를 하면서 손을 많이 쓰는 편임. 특히 회계사를 준비 중인데 계산할 일이 많아서 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② 뒷목과 어깨가 아프지만 공부하느라 생긴 부분이고 특별히 문제라고 느끼지는 않음

14) 性慾 : 성적 자극을 받은 후 눈 충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15) Stress 對應 方式 :

① 집중력이 높은 편임

②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여자 친구와 헤어짐. 원래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정리하는 습관이 있고 주변정리가 잘 되어야 집중이 더 잘되므로 따로 나와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음



**Table 3.** The main diagnostic points of this case

Term / Interpretation	Expression in the provision of <i>Shanghanlun</i>	Related Patient Information
Jueyinbing	厥陰病	Concentrating on a sophisticated work by straining hands, feet and chest made the chief complaint
Using hands and feet ; A illness related cold occurs.	手足厥寒	The more the patient concentrated using his hands, the more he felt chills
Immature biological reactions	脉細	The patient's body hardly get muscle in spite of a decent training
Tending to end a relationship	欲絶	The patient lost contact with his acquaintances
Staying in house for long time ; A illness related cold occurs.	內有久寒	Indoor activities made the patient fragile to chills

③ 예민한 편이라는 말을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듣고 있어서 공부를 할 때는 일부러 부모님과 떨어져서 따로 방을 잡아놓고 공부함. 그런데 이렇게 생활할 때 아플 때가 많음

## 10. 진단 및 평가 방법

### 1) 辨病診斷 및 條文의 선정(Table 3 참고)

#### (1) 臨床所見

상기 환자는 시험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손에 집중을 많이 하는 상황임.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야 하고 본인의 공부스타일이 필기도구를 잡는데 힘을 많이 주는 편임. 그리고 집중을 요하는 행위가 많아질수록 증상이 심해짐

#### (2) 辨病診斷: 厥陰病

손과 팔을 사용하여 공부에 집중하는 행위가 주소증을 악화시킴

(3) 條文診斷: ㉔351. 手足厥寒, 脉細欲絶者, 當歸回逆湯主之. 352. 若其人, 內有

久寒者, 宜當歸回逆加吳茱萸生姜湯.

① 手足厥寒: 분명히 팔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차갑다는 소리를 많이 함.

② 脉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잘 생기지 않음. 즉, 몸의 움직임이 여림

③ 欲絶: 집중을 위해서는 여자 친구와 이별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님과 떨어져서 집중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④ 內有久寒: 공부를 계속 하기 위해서 실내생활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더 심화됨. 또한 햇빛이 없는 실내생활을 하면서 에어컨에 많이 노출될 때 증상이 더 심해짐

2) 치료 평가 도구: 미국 국립 안연구센터 시각기능설문지 25(NEI-VFQ-25)의 한국어 판<sup>5)</sup>을 이용함.

### 11. 치료적 증재

1) 한약 투여 (Table 4, 5 참고)

① 當歸回逆湯을 75일간 투약하였으며, 1일 3회, 1회 120cc를 복용하도록 함

② 그 후 當歸回逆加吳茱萸生姜湯을 다시 28일간 투약하였다. 마찬가지로 1일 3회, 1회 120cc를 복용하도록 함

**Table 4.** Composition and administration of Danggwihoeyeok-tang<sup>2)</sup>

Herbal name	Scientific name	Daily dose(g)
當歸	Angelicae Gigantis Radix	9
桂枝	Cinnamomi Ramulus	9
芍藥	Paeoniae Radix	9
細辛	Asiasari Radix	9
甘草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6
木通	Akebiae Caulis	6
大棗	Zizyphi Fructus	18

Dried herbs above were decocted in boiled water. 120cc tid, 35days.

2) 생활지도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할 것을 지시함

특히 손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을 피하여 손가락 스트레칭을 자주 해줄 것을 지시함

### 12. 치료기간 및 경과

1) 기간 : 2017년 2월 27일 - 2017년 4월 17일

2) 경과 (Figure 4, Table 6 참고)

(1) 초진일 : NEI-VFQ-25 항목 중

-General Health : 25점

-General Vision : 40점

(2) 39일 후 재진 (當歸回逆湯 복용 39일)

① NEI-VFQ-25 항목 중

-General Health : 50점으로 개선

-General Vision : 80점으로 개선

② 한약을 복용하고 나서 3-4일이 지나니 눈이 맑아지는 것이 곧바로 느껴짐

③ 머리 전체가 상쾌해진 느낌이 들

④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몸 전체가 따뜻해지니까 손도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함

(3) 75일 후 재진 (當歸回逆湯 복용 75일)

① 전반적으로 편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안 좋아짐

② 이전에는 밖에 나가서 운동도 곧잘 했는데 시험기간이 다가오면서 외부활동을

**Table 5.** Composition and administration of Danggwihoeyeokgaosuyusaenggang-tang<sup>2)</sup>

Herbal name	Scientific name	Daily dose(g)
當歸	Angelicae Gigantis Radix	9
桂枝	Cinnamomi Ramulus	9
芍藥	Paeoniae Radix	9
細辛	Asiasari Radix	9
甘草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6
木通	Akebiae Caulis	6
大棗	Zizyphi Fructus	18
吳茱萸	Evodiae Fructus	36
生薑	Zingiberis Rhizoma Crudus	24

Dried herbs above were decocted in boiled water. 120cc tid, 35days.

하지 않고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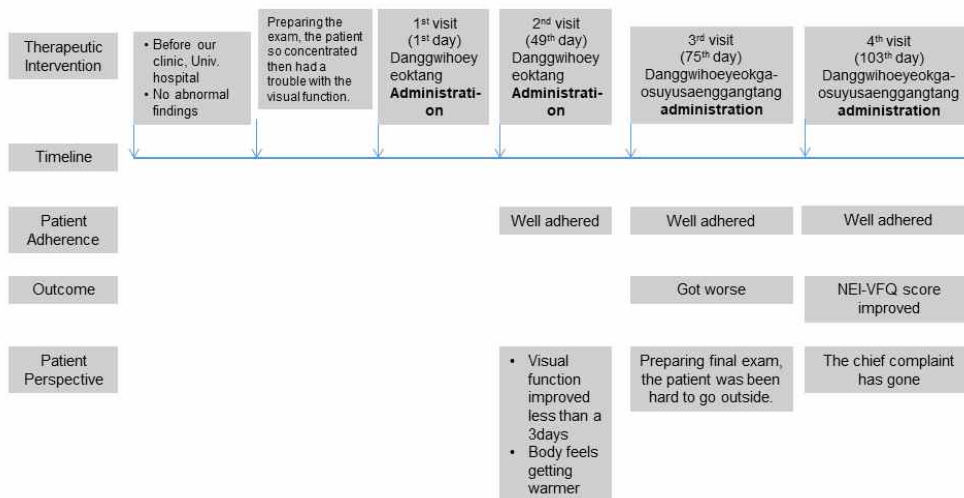
(3) 103일 후 재진(當歸回逆加吳茱萸生姜

湯 복용 28일)

① 어지럼증과 눈 충혈이 사라짐

② 시험을 잘 치러서 2차 시험도 합격함

Figure 4. Timeline analysis of this case



\* This figure's categories such as Therapeutic intervention, Timeline, Patient adherence, Outcome, Patient perspective follow the CARE guideline.

Table 6. NEI-VFQ-25 score<sup>5)</sup> change between 1st and last visit.

	1 <sup>st</sup> visit	Last visit
General Health	25	50
General Vision	40	80
Ocular pain	0	62.5
Near activities	41.67	83.33
Distance activities	66.67	91.67
Social functioning	87.5	100
Mental Health	31.25	75
Role difficulties	12.5	62.5
Dependency	100	100
Driving	83.33	91.67
Color vision	100	100
Peripheral vision	100	100

## 증 례 2

1. 환자명 : ○○○

### 2. 환자 기본정보

여성 / 75세 / 157cm / 64kg / 펜션 관리업

### 3. 주소증(C/C) :

① 황반변성.

사물이 어그러져 보이고 흐릿함. 눈이 많이 피곤함. 이전부터도 눈이 많이 침침했었는데 3월부터 갑작스럽게 사물이 더 어그러져 보이기 시작함. 안과에 갔더니 황반변성이라는 진단을 받음

② 수전증

황반변성을 위한 눈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갑작스럽게 심해짐. 이전에도 팔과 다리가 많이 당겨서 피로한 경우 떨리는 성향이 있었는데 눈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더 많이 떨림

4. 발병일(O/S) : 2017년 3월

### 5. 현병력(P/I)

① 눈 수술과 수전증 시술을 한 이후에 목 소리가 떨리고 말이 잘 안 나옴. 빨리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옴

② 골반통증. 20년 전에 hip up을 하는 주사를 맞고 나서부터 발생. 특히 엉덩이가 뭉치고 아픈 느낌. 잘 걷기가 힘들고 당기고 아프며 뻣뻣한 느낌. 다리부위에까지 해당 통증이 전달이 됨

6. 가족력 : 별무

### 7. 과거력 :

2017년 3월 안과에서 수술을 함. 수술 후에는 이전보다 조금 더 낮지만 여전히 눈이 많이 피곤해져 있는 상태임

8. 현재 복용중인 약물 : 없음

### 9. 주요 임상증상

1) 食慾 :

① 허기를 참기 힘들. 그런데 속이 쓰리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먹지 못함

② 육식을 좋아함. 그런데 고기가 잘 소화 안 됨

2) 消化 :

① 체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침을 맞으러 다님

② 속이 쓰리는 경우가 잦음

3) 口部 : 1일 500ml. 따뜻한 물을 많이 먹는 편임

4) 汗出 : 몸을 많이 움직이는 편임. 땀은 잘 나고 있음

5) 大便 : 1일 1회. 대변이 시원치 않을 때가 많음.

6) 小便 : 1일 6회. 야간 3회. 밤에 잠을 잘 안자고 일을 할 때가 있어서 자주 화장실을 감.

수술 이후에 소변을 보는데 불편한 느낌이 계속 듦

7) 寒熱 : 더위를 못 견디는 편임.

8) 頭面

눈이 많이 침침함. 사물이 어그러져 보임. 황반변성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 이후에도 사물이 뚜렷이 보이지 않음

- 9) 呼吸: 기침을 자주 하는 편임
- 10) 胸部: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특별히 잘 표현하지 않음
- 11) 腹部: 변비가 있지만 가스가 차지는 않음
- 12) 睡眠: 수면에는 큰 문제는 없음
- 13) 身體:
  - ① 허리와 다리가 많이 당긴. 다리만 당기지 않아도 살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함.
  - ② 손발이 저릴 때가 자주 있음
- 14) 性慾: 성욕 자체는 별로 없음. 젊어서도 성욕이 많은 편은 아니었음
- 15) 婦人: 출산 3회. 유산 10회
- 16) Stress 對應 方式: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로 푸는 편임. 현재는 체력이 약해져서 몸을 많이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꼭 함

- ① 상기 환자는 지나치게 몰입해서 일을 하는 성격으로 75세의 나이에도 직접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함
- ② 낮에 몸이 무거우면 저녁으로 일을 미루어 저녁에도 일을 쉬지 않음
- ③ 일에 몰입하느라 눈이 흑사당함
- ④ 일할 때 팔다리를 많이 쓰고 있으며, 특히 상체를 많이 씀

(2) 辨病 診斷: 厥陰病 霍亂

주변의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일에 몰입하고 있으며 주로 일하는 시점이 밤임. 또한 집중할수록 눈의 문제가 심해지고 팔을 많이 쓰는 일일수록 더욱 증상이 심해짐

(3) 條文 診斷: ㉔390. 吐已下斷, 汗出而厥, 四肢拘急不解, 脉微欲絶者, 通脉回逆加猪膽汁湯主之.

① 汗出

: 전체적인 병의 증상이 일을 많이 하면 서부터 발생함

10. 진단 및 평가 방법

1) 辨病 診斷 및 條文의 선정(Table 7 참고)

(1) 臨床 所見

Table 7. The main diagnostic points of this case

Term / Interpretation	Expression in the provision of <i>Shanghanlun</i>	Related Patient Information
Jueyinbing	厥陰病	Concentrating on a sophisticated work by straining hands, feet and chest made the chief complaint
Huoluan	霍亂	Trouble with the visual function
Making sweat	汗出	The labor did worsen the patient's illness
Tied limbs	四肢拘急	Too many use of her limbs without a break

② 四肢拘急

: 어떤 일을 하든지 팔에 힘을 지나치게 많이 줌.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것 보다는 먼저 팔다리가 움직이는 편임. 딸이 옆에서 관찰하기에 자신의 엄마는 팔다리가 바쁜 사람이라는 말을 함

2) 치료 평가 도구 : 미국 국립 안연구센터 시각기능설문지 25(NEI-VFQ-25)의 한국어판<sup>5)</sup>과 Numerical Rating Scale(NRS) 지표를 이용함.

11. 치료적 증재

1) 한약 투여 (Table 8 참고)

通脉回逆加猪胆汁湯을 38일간 투약하였으며, 1일 3회, 1회 120cc를 복용하도록 함

**Table 8.** Composition and administration of Tongmaekhoeyeokgajeodamjeup-tang<sup>2)</sup>

Herbal name	Scientific name	Daily dose
甘草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6 g
乾薑	Zingiberis Rhizoma	9 g
草烏	Aconiti Ciliare Tuber	3 g
猪胆汁	Bile of a piglet*	10 cc

Dried herbs above were decocted in boiled water. 120cc tid, 35days.

\*In this case, we used the bile of a mature pig.

2) 생활지도

팔과 다리를 많이 풀어줄 것을 지시함. 그리고 저녁에 일을 몰아서 하지 말고 낮과 나뉘

서 일을 하라고 함. 특히 밤에 일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자신이 일을 하는 것 보다는 주변에 일을 나눠주라고 지시함

**Table 9.** NEI-VFQ-25 score<sup>5)</sup> change between 1st and last visit.

	1st visit	Last visit
General Health	0	50
General Vision	20	60
Ocular pain	12.5	50
Near activities	25	41.67
Distance activities	25	31.5
Social functioning	62.5	75
Mental Health	31.25	43.75
Role difficulties	25	50
Dependency	25	33.33
Driving	None	None
Color vision	75	100
Peripheral vision	50	50

12. 치료기간 및 경과

1) 기간 : 2017년 7월 18일 - 2017년 8월 25일

2) 경과 (Figure 5, Table 9 참고)

(1) 초진일 :

① 황반변성 : NEI-VFQ-25 항목 중

-General Health : 0점

-General Vision : 20점

② 수전증 : NRS : 9

(2) 38일 후 재진 (通脉回逆加猪胆汁湯 복용 38일)

① 황반변성 : NEI-VFQ-25 항목 중

-General Health : 50점

-General Vision : 60점

② 수전증 : NRS : 5

③ 한약 1주일 정도 만에 눈의 피로가 많이 가시게 됨

④ 눈이 피곤하지 않으니 몸이 이완이 되면서 긴장이 풀어짐. 그리고 팔다리의 떨림

이 줄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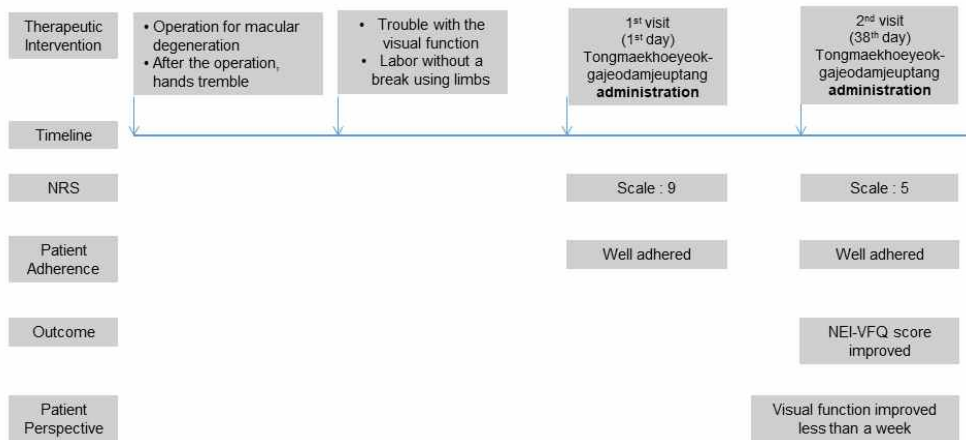
⑤ 2 주 정도 복용한 이후에는 수전증이 50% 정도로 감소

⑥ 4주 복용 후 수전증은 여전히 약간씩

존재하긴 하지만 일을 하기에는 크게 불편하지 않은 상태임.

⑦ 팔다리가 많이 당겨서 저녁에 잠을 자기 힘들었는데 완화됨

Figure 5. Timeline analysis of this case



\* This figure's categories such as Therapeutic intervention, Timeline, Disease status(NRS), Patient adherence, Outcome, Patient perspective follow the CARE guideline.

Table 10. The comparison of the interpretations about controversial terms in *Shanghanlun* and the patients' information in this study.

	Former Term / Interpretation	New Hypothesis about The Interpretation	Patient Information (case 1)	Patient Information (case 2)
厥	1. Severe syncope or coma to death 2. Cold limbs 3. Reverse 4. The last step in cold damage(傷寒)	Concentrating on a sophisticated work by straining hands, feet and chest	The more the patient concentrated using his hands, the more he felt chills	Too many use of her limbs without a break worsened the patient's illness
厥陰病	Reverting yin disease*	Doing 厥(jue) drives a patient sick(病,bing) especially in night-time(陰, yin).		
霍亂	Cholera*	Trouble with the visual function		Macular degeneration

\*Terminology using in this category was consulted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 3. 厥, 厥陰病, 霍亂의 개념과 두 증례의 관계 요약

기존 한의학의 厥, 厥陰病, 霍亂 개념과 증례 1, 2에 나타난 개념을 비교하면 위와 같

다.(Table 10)

증례 1의 환자는 손을 많이 사용하는 형태로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가, 증례 2의 환자

는 밤에 풀을 뽑거나 펜션 건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병이 발생하였는데 그 모습이 새롭게 정의한 厥의 의미와 유사하였다. 반면, 『內經』에서 말하는 厥의 의미 범주(人事不省, 四肢逆冷, 氣血逆亂)에는 환자가 해당하는 부분이 없었다.

두 환자 모두 주로 밤에 일을 하면서 병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형태는 작은 일에 집중하느라 손발과 흉곽에 힘을 주는 厥의 모습이었다. 이는 곧 밤(陰)에 厥하여 병을 만들었다는 ‘厥陰病’ 단어 자체의 뜻과 일치한다.

또 霍亂은 기존까지 한의학에서 토하고 설사하는 증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환자 어원을 살펴본다면 비문증에 가까우며 더 나아가서는 눈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 증례1, 2의 환자는 모두 눈 문제가 주소증이였다. 특히 그 중 증례 2의 환자는 황반변성이라는 시각이상을 호소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霍亂의 의미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 고 찰

### 1. 厥陰病 및 霍亂 진단 과정 분석

#### 1) 厥

증례 1, 2의 환자의 공통점을 통해 厥陰病의 의미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증례 1의 환자는 시험공부를 하면서, 증례 2의 환자는 펜션 관리 일을 하면서 주소증이 악화되었다. 이 과정들을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한다’ 혹은 ‘무리를 한다’라고 규정한다면 이는 『傷寒論』에서 의미하는 ‘大’나 ‘脉浮’와 의미가 더 잘 통한다. 그렇게 진단한다면 증례 1,2의 환자를 太陽病으로도 진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두 환자가 일을 하는 모습은 몸 전체를 사용한다기보다 한 자리에서 작은 작업 반경을 가지고 집중하는 형태이다. 이런 작은 작업 반경은 자연스럽게 시력의 과사용, 손발의 정교한 움직임을 요구한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작업은 하루 중 밤(陰)에 이루어지는데, 어두운 환경에서는 사물이 잘 보이지 않아 눈과 손발에 더 큰 힘이 들어간다.

증례 1의 환자는 공부를 하더라도 연필에 힘을 주거나 계산기를 두드리거나 하여 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증례 2의 환자 역시 밤에 풀을 뽑거나 펜션 건물을 관리하는 일로 작업 반경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증례 2의 환자는 손발뿐 아니라 팔다리까지 많이 사용하는 작업 형태였으나 제자리에서 작은 작업 반경을 가지고 일했을 것이므로 ‘大’라는 글자로 이 모습을 표현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힘을 집중하는 신체 부위가 증례



1은 손발, 증례 2는 팔다리였는데 이 역시 ‘手足厥寒’과 ‘四肢拘急不解’를 통해 해당 조문에 잘 표현되어있다.

이와 같이 두 환자가 일하는 모습은 새로 정의한 ‘厥’의 의미와 관계가 깊었으며, 바로 이 厥 행위를 밤에 함으로써 주소증을 유발했다고 진단할 수 있었다.

## 2) 주소증인 눈의 문제와 厥陰病의 관계

이렇게 ‘손발에 힘을 주며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厥은 주로 밤(陰)에 이루어져서 厥陰病의 상황을 만든다. 특히 『傷寒論』 저작 시기에 밤의 시간은 불빛이 없거나 약한 환경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어두운 환경에서 작은 것에 집중하여 일 하다보면 시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은 厥陰病의 제강\*인 ‘氣上撞心’에서도 드러난다. ‘撞’에서 왼쪽 부수를 제외한 ‘童’<sup>13)</sup>은 ‘한 쪽 눈(目)을 칼(辛)로 도려낸 남자 노예 아이’를 형상화한 글자이다(figure 6). 증례 1,2의 환자들에게서도 厥하는 상황에서 시각기능의 문제가 함께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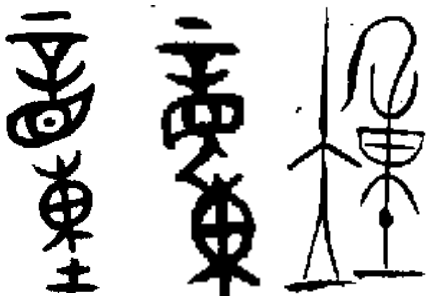


Figure 6. 金文中 나타난 ‘童’

## 2. 기존 厥陰病 처방 활용 방식에 대한 고찰

厥과 厥陰病의 개념을 수정한다면 기존 『傷寒論』 厥陰病 처방들에 대한 인식과 활용 방식에 대해서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본고의 두 증례에 사용된 當歸回逆加吳茱萸生薑湯, 通脈回逆加豬膽汁湯은 기존에 연구되거나 사용한 증례가 보고된 바가 없다. 다만 當歸四逆湯에 관해서는 실험 논문이 두 건 있었다.

김<sup>14)</sup> 등은 연구에서 當歸四逆湯이 溫經散寒 養血通脈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쓰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양<sup>15)</sup> 등은 연구에서 當歸四逆湯의 각 약재가 골 관절염에 대한 항염증 및 진통효과가 있어 當歸四逆湯 자체도 골 관절염에 응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 연구는 각각 當歸四逆湯에 대한 후대의 해석과 각 약재의 약리적 효능에 근거하여 처방을 활용하였고 원했던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두 연구가 설정한 當歸四逆湯의 적응증은 『傷寒論』 원문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기존 한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當歸四逆湯의 적응증과도 거리가 있어 논의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대신 기존 한의학의 일반적인 견해를 담고 있는 『傷寒論正解』<sup>16)</sup>를 살펴보면 우선, 當歸四逆湯을 말초혈관질환, 통증질환, 동상, 피부질환 등에 활용한다고 하였다. 또 當歸四逆加吳茱萸生薑湯에 대해서는 “內寒

\* ④326. 厥陰之為病, 氣上撞心, 心中疼熱, 飢而不欲食, 食則吐, 下之利不止.

이 본래 있었다면 內外相縛하여 肝寒의 上逆이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 본방을 쓴다.”라고 하였다. 通脉四逆湯에 대해서는 “霍亂으로 陽亡陰竭한 경우의 증치”라고 하며 通脉四逆湯은 回陽하고 猪膽汁은 益陰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厥과 厥陰病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厥陰病 처방 조문에 대한 해석 역시 『黃帝內經』의 의학 이론체계를 가지고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설명을 풀어내자면 當歸四逆湯, 當歸四逆加吳茱萸生薑湯은 말초가 차가워지는 것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通脉四逆加猪膽汁湯은 잦은 구토와 설사로 몸의 기운과 진액이 다 빠진 것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증례 1의 환자는 분명 當歸回逆湯과 當歸回逆加吳茱萸生薑湯 처방을 통해 손이 따뜻해지긴 했으나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어지러움과 눈 문제였다. 만약 厥과 厥陰病에 대한 이해 없이 손발의 차가움에만 주목하고 있었다면 當歸回逆湯과 當歸回逆加吳茱萸生薑湯을 처방할 수 없었을 것이다. 『傷寒論』 내에서만 봐도 손발의 차가움에 관한 조문은 厥陰病 외에 다른 편에도 많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증례 2의 환자는 설사는 커녕 변비였고 쉬지 않고 바쁘게 일을 할 정도여서 몸의 기운이 다 빠진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이를 한의학에서 말하는 ‘吐下’나 ‘陽亡陰竭’ 개념으로 진단해내기에는 개연성이 떨어졌다. 通脉回逆加猪膽汁湯 복용을 통해 환자는 눈 문제부터 개선됨을 느꼈고 긴장이 풀어지면서 수전증, 소화 문제도 차차 좋아졌다. 역시 기존의 厥 개념과 霍亂 개념으로 이 환자를 진단했다면 通脉回逆加猪膽汁湯을 처방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까지 厥과 厥陰病의 개념 및 소속 처방의 활용법은 『傷寒論』 원저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본고에서 제시한 厥의 개념이 타당하다면 厥陰病 하위 조문의 의미, 처방의 의미와 용례까지 새로운 厥의 개념에 맞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1) 『傷寒論』 저작 시대 한자 어원을 설명한 근거자료가 부족하며 고문자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지 못했다.

\* ④148. 傷寒五六日, 頭汗出, 微惡寒, 手足冷, 心下滿, 口不欲食, 大便鞭, 脉細者, 可與小柴胡湯, 設不了了者, 得屎而解.

④219. 三陽合病, 腹滿身重, 難以轉側, 口不仁, 面垢譫語, 遺尿發汗, 譫語□□下之則額上生汗, 手足逆冷, 若自汗出者, 白虎湯主之.

④305. 少陰病, 身體痛, 手足寒, 骨節痛, 脉沉者, 附子湯主之.

④309. 少陰病, 吐利, 手足逆冷, 煩躁欲死者, 吳茱萸湯主之.

④324. 少陰病, 飲食入口則吐, 心中溫溫欲吐, 復不能吐, 始得之, 手足寒, 脉弦遲, 不可下也, 若膈上有寒飲, 乾嘔者, 不可吐也, 當溫之, 宜回逆湯.

2) 大陽病의 ‘厥’, 少陰病의 ‘厥’에 대해서는 증례가 없어 厥陰病의 ‘厥’과 같은 의미로 활용되었을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두 환자 모두 눈 문제를 호소했음에도 한 명은 厥陰病, 다른 한 명은 厥陰病 霍亂의 처방으로 치료되었다. 그러나 厥陰病과 厥陰病 霍亂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으며 그 확실한 구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4) 근거 증례가 厥陰病과 厥陰病 霍亂 각 1례씩이므로 사실상 단일 증례 연구이다. 따라서 두 증례에서 밝혀낸 사실을 일반화시켜 『傷寒論』 text를 설명하기에는 근거 수준이 빈약하다.

5) 환자 치료 과정에서 투약기간이 길지 않아 명확한 효과 검증이 힘들며, 추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傷寒論』 저작시대 한자 연구 및 『傷寒論』 내 조문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傷寒論』 고유의 厥, 厥陰病, 霍亂의 의미를 정립하려 노력한 최초의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앞으로 『傷寒論』 저작시대 한자 연구 방식이 발전하여 더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타당하고 정교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본고는 임상에서 厥, 厥陰病, 霍亂의 새로운 의미에 맞추어 2명의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였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정의된 厥陰病의 개념이 하위 조문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됨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병의 원인을 형이하학적인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었다.

또 기존까지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던 厥陰病, 厥陰病 霍亂과 厥陰病 소속 처방들에 대해 실제 임상증례를 제공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傷寒論』 15字注와 『內經』이 서로 다른 의학체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傷寒論』 연구에서도 『內經』의 내용을 기반으로 『傷寒論』을 해석 및 재현하는 연구 방식을 지양하고, 『傷寒論』 text 자체의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결론

1. 厥의 한자 어원 분석, 『康平傷寒論』 15字注에서 厥이 사용된 문맥 등을 근거로 厥이 ‘손발과 흉곽에 힘을 주며 작은 일에 몰두하는 행위.’라는 가설을 세웠다.

2. 새로운 가설을 바탕으로 『傷寒論』 辨病診斷體系를 운용하였고 한약을 투여한 결과 2명의 환자를 호전시켰다.

3. 증례 1의 환자는 먼저 當歸回逆湯을 75일 복용하고, 이어서 當歸回逆加吳茱萸生薑湯을 28일 복용한 후 NEI-VFQ-25 항목 중 General Health가 25에서 50, General Vision이 40에서 80으로 개선되었다.

4. 증례 2의 환자는 通脉回逆加猪膽汁湯

을 38일 복용한 후 NEI-VFQ-25 항목 중 General Health가 0에서 50, General Vision 이 20에서 60으로 개선되었다. 또 수전증 NRS 점수도 9점에서 5점으로 개선되었다.

## Reference

1. JY Gwak, YT Lee. Literature Review on the Reverse.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10;24(5):737-747.
2. SI Lee. Comparison of Shanghanlun. Seoul: KMediACs publishing house. 2015:231-233.
3. KM Park, SH Choi. Comparison study between Shanhanlun and Huangdi Neijing through historical study on Gangpyeong Shanhanlun. Korean Medical Classic Association. 1995;9(0):265-301.
4. SJ Lee, JE Lim. A diagnostic system and clinical application based on Shanghanlun six meridian patterns and provisions. Seoul:KMediACs publishing house. 2013;5(1):1-17.
5. JW Heo, HS Yoon, JP Shin, et al. A Validation and Reliability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National Eye Institute Visual Function Questionnaire 25. J Korean Ophthalmol Soc 2010;51(10):1354-1367.
6. Mangione CM, Lee PP, Pitts J, et al.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National Eye Institute Visual Function Questionnaire (NEI-VFQ). NEI-VFQ Field Test Investigators. Arch Ophthalmol 1998;116: 1496-1504.
7. Mangione CM, Lee PP, Gutierrez PR, et al. Development of the 25-item National Eye Institute Visual Function Questionnaire. Arch Ophthalmol 2001;119:1050-1058.
8. HC Yoo, JJ Gwak, et al. The study of Literature Review on the pathological mechanism and Therapeutic methods of sudden coma -Focused on Different opinion of successive dynastic medical group in HwangJeNaeKyung and SangHanRon. Journal of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 2003;11(1):57-90.
9. SH Lee. A study on the Ke-qin's recognition about Reverting yin disease pattern in Shanghanlun.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2;25(4):23-38.
10. JK Bang. A Study on the Gwoljeung.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5;18(2):145-153.
11. WC Jang. Study of gwol and gwoleumbyeong from Sanghanron.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8;21(2):87-99.
12. YB Rho, JH Lee, HY Ha. The Fundamental Meaning of Mai and Shanghanlun Provisions Based on Paleography. Seoul:KMediACs publishing house. 2015;7(1):1-14.
13. YS Heo. Hanjaeowonsajeon. Doseochulpan3. 2014; 68,127,160.
14. DB Kim, CJ Kim, CS Cho. The Effects of Danggwisaeyeoktang on the Hypothyroidism of Rat. The Korea journal of herbology. 2007;22(1):95-102.
15. DH Yang, CH Woo, JM Kim, HD Ahn. Effects of Danggwisaeyeok-tang (Dangguisini-tang) on MIA-Induced Osteoarthritis Rats. Journal of Korean Medicine Rehabilitation. 2015;25(2):37-50.
16. JJ Mun, et al. Sanghallonjeonghae. Hanui-munhwasa. 2013:660-662,719-720.